

# 총선 물밑 스타트... 추석 민심 잡아라

## ■ 지역 국회의원·입지자들 귀향 활동

### 전통시장·경로당 찾아 지역민과 스킨십

### 체육대회 참석·복지관서 봉사 여론 청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입지자들은 이번 추석 연휴동안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온 친지와 친구들 사이에 벌이는 정치인들의 평가가 내년 총선 여론 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연 의원은 9일 목포로 내려가 지역언론사가 주최하는 특강을 하고 목포지역 재래시장을 방문, 추석 민심과 지역경제의 애로점을 들기로 했다. 또 불우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뒤 12일 새벽 귀경,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국경감사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9일부터 13일까지 지역구인 나주와 화순을 오가며 지역민과 접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관내 경로당과 보육원 등 볼

우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별로 열리는 면민대회 및 체육대회, 노래자랑 현장을 찾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조연을 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른 추석 귀향활동에 들어간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시·구 의원들과 함께 광주 남구지역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을 둘러 상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 국경감사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 지역민심과 현안 사업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기로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9일 여수로 내려가 지역 곳곳을 돌며 추석 민심을 살필 계획이다. 우선 시청·향만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 들러

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남산시장, 서시장 등 전통재래시장을 돌며 고물가에 힘들어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등을 둘러보며 당차원의 지원책과 개선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8일 광주에 내려간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9일 저녁 상무역에서 '1일 역장'을 하며 귀성객을 맞는 한편 서구 지역의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방문, 민심을 살피며 계획이다. 조 의원은 특히 장애인복지시설과 예방검진원의 후원 결연식을 주선하고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서구장애인복지관에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봉사활동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광주 북갑 출마를 검토 중인 이원호 모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이번 추석 휴가길 동안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위안잔치와 체육대회에 참석, 지역구민과 접촉면을 늘리기로 했다. 또 추석 당일에는 고향 장성을 찾아 성묘하고 어른들께 출마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광주 서을에 출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과 일함을 겨루기로 한 이날재 당 대표 비서실 차장은 이번 추석을 선거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일 광주에 내려가 선거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구의 여론주도인사들을 만나 출마 의사를 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해야”

## 손학규 대표 국회 연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정의로운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과도적으로 대기업은 기업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정부 50%, 기업 50% 부담 원칙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는 등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다. 국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시행해 가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며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와 취업제도의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북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다시 남북교류를 시작하고 6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마주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결하고 진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와 함께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며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화자찬 자기 비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권, 서울시장 ‘투트랙 경선’ 합의

## 박원순, ‘安風’타고 유력후자 급부상

## 한명숙, 출마 여론 고조... 막판 고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시민사회단체 등 야권은 8일 서울시장 야권통합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진영별로 후보를 정한 뒤 통합 경선을 하는 ‘투트랙 경선’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전전배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원상 경선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투트랙 방식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트랙 경선이 확정되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각 당 후보 간의 2차 경선에 의해 야권 후보가 결정된다.

특히 박 상임이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며 야권의 유력후보로 급부

상하고 있어 통합 경선의 흥행동풍이 가능할 것으로 야권을 보고 있다.

박 상임이사는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조사에서 19.2%의 지지율로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18.4%),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18.3%)을 오차범위 내에서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나 최고위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51.1% 대 32.5%로 크게 앞섰다.

유기일보와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박 상임이사는 19.8%로 한 전 총리(13.2%), 나 최고위원(12.6%)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선두를 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양자대결에서도 나 최고위원(33.5%)을 크게 앞선 49.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박 상임이사와 함께 야권의 양대 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총리도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제1야당이 유력후보가 있으면서도 후보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재촉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세균·김영환·박병석·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3선 이상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26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후보로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석 연휴 안철수 전국 인지도 확산”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용 조사분석실장은 8일 “추석 연휴를 계기로 ‘안철수’라는 정치적 인물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어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권후보 급부상에 대해 “추석은 각 세대가 만나고 다른 곳에 살던 이들이 한 자

소에 모이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둔 2006년에도 추석을 전후해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안철수 현상이 확산에서 장년층, 노년층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0타경 22864	3	동소 19-7 4층 403호 19.98㎡ 동소 19-7 4층 404호 20.905㎡ 동소 19-7 4층 405호 21.83㎡ 동소 19-7 2층 205호 21.83㎡	다세대 다세대 다세대 다세대	276,009,400 276,009,400	2010타경12959[종복] 2011타경13560 [병합]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40367	1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50-14 1471㎡ 공장 및광업채단지장법제소에의한기구,기구목적은별지기재와같음 동소 550-14 249㎡ 공장및광업채단지장법제6조에의한기구,기구목적은별지기재와같음 제시외의공장 등 653.7㎡ 기계기구 9	전 버섯재배사	276,009,400 276,009,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일부타지상소재]유형,농지특득자격증명요,기계기구부속소재물명
2010타경 41278	1	영광군 영산면 아월리 산16-32 1987㎡	임야	2,726,900	일괄매각, 분묘소
2010타경 41957	1	동소 670 1871㎡	전	19,507,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0타경 3891	1	동소 685 3131㎡	임야	2,726,900	제시외건물제외
2011타경 10912	1	정선군 서상면 금계리 308-1 1169㎡	전	89,250,000	제시외건물제외
2011타경 11106	1	나주시 삼정동 산52-2 55402㎡ [공유차허위갑구8면지분72099번의17355, 45전부]	임야	62,680,140 62,680,140	중유자우선매수권 행사시1회에한하여여용, 분묘소재
2011타경 11229	1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200 2205㎡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4,030,000	일괄매각, 분묘소재, 과실수목포함
2011타경 11229	2	동소 242 3059㎡	대	16,824,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11618	1	곡성군 곡면면 대도리 산83 1108㎡	임야	3,608,800	일괄매각, 각분묘소
2011타경 12963	1	곡성군 곡면면 명산리 산65 6정4면8무부	임야	1,820,880 1,836,000	분묘소재
2011타경 13058	1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645-2 1507㎡ [공유자택성면지분2분의1전부] 동소 645-3 1567㎡ [공유자택성면지분2분의1전부]	전	46,912,720 15,370,000	일괄매각,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시1회에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13065	1	담양군 고서면 동촌리 1300-7 132㎡ [토지일부가연접한1300-14지, 1300-20번지, 1300-18번지와외단의단독주택부지이용이유중으로각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8,580,000 8,580,00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시1회에한하여, 공유자승용대지분2분의1전부
2011타경 13767	1	북구 효령동 산13 690㎡ [분묘소기소재하여]	임야	3,036,000	3,036,000
2011타경 15634	1	화순군 도곡면 청양리 344-1 618㎡ [매각의제시외건물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69,382,000	수목포함매각함
2011타경 9097	1	동구 호남동 30-4 45.2㎡ 동소 30-7 127.7㎡ 동소 30-8 69.4㎡ 동소 30-21 2.2㎡ 동소 30-4 135.19㎡ 부속건물 번소 4.2㎡ 제시외 창고 등 105.2㎡	대 대 대 대 정토	823,550,000 823,55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